

保護者의 口腔保健管理態도와 乳齒列期 兒童의
齒苔指數와의 關係에 關한 研究

朝鮮大學校 齒科大學 小兒齒科學教室

林光昊 · 金南洪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ARENTS' ATTITUDES TOWARD THE DENTAL HEALTH OF THEIR CHILDREN AND THE DENTAL PLAQUE INDEX OF CHILDREN WITH PRIMARY DENTITION

Kwang-Ho Lim, Nam-Hong Kim

Dept. of Pedodontics, School of Dentistry, Chosun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attitudes toward their children's dental health and dental plaque index.

Dental plaque index was obtained through oral examination of 118 children (female 40, male 78) with primary dentition. The maintenance status of children's dental health through parents' aids was evaluated by means of questionnaire to which 79 persons among the 118 children's parents answered.

The results were as follows :

1. In children with primary dentition, toothbrushing together with toothbrushing instruction and continuous reinforcement had decreased plaque accumulation progressively.
2. Dental plaque index before toothbrushing showed that dental plaque was accumulated more in the buccal surfaces of teeth in the maxilla and in the lingual surfaces of teeth in the

mandible. It was higher in the posterior teeth than in the anterior teeth and in the maxillary teeth than in the mandibular teeth.

3. Dental plaque index of children was inversely proportional to the level of education of their parents.

4. Those parents who have much knowledge of oral hygiene were more positive toward their children's oral hygiene.

I. 緒 論

小兒期에서 齒牙齲蝕症은 永久齒의 發育障礙, 乳齒의 早期喪失, 不正咬合과 顎骨의 發育不全을 惹起하며, 齒周疾患은 成人期까지 長期間 影響을 미쳐 慢性 齒周疾患을 誘發시키는데, 이들 疾患의 主된 原因이 齒苔蓄積과 깊은 關聯이 있다. ^{9,18,21,34} 權(1975)¹⁾, 李(1979)⁹⁾ 및 Brandtzaeg 等(1964)¹⁷⁾은 齒苔와 齒齦炎症과의 關係를, Clark 等(1973)¹⁹⁾은 齲蝕羅患率과 齒苔와의 關係를, Greene(1968)²⁴⁾은 齒周疾患과 口腔衛生狀態와의 關係를 報告하였다.

口腔衛生器具에는 칫솔, Dental floss, Rubber stimulator, Wooden stimulator, plastic interdental cleanser, Oral irrigating device 等이 現在 使用되고 있는데 이 中 칫솔질은 基本的이고 效果的인 家庭口腔保健 管理方法으로 널리 利用되고 있다. 칫솔질 方法에 對해서 많은 研究가 報告된 바 있으며, ^{4,15,25,33,35,36} Anaise(1975)¹⁵⁾, McClure(1966)³³⁾ and Sangnes(1974)³⁵⁾은 乳齒列期 兒童의 칫솔질 方法을, Starkey(1961)³⁸⁾는 保護者가 兒童을 칫솔질 시키는 方法을 報告하였다. 權(1975)¹⁾, 申等(1982)⁸⁾은 칫솔질 回數와 齒苔指數와의 關係를, 朴等(1982)⁷⁾은 未就學 兒童의 齒苔形成 및 口腔狀態를, 金(1975)²⁾은 칫솔 運動方向과 齒磨劑의 磨耗度를, Kimmelan 等(1960)²⁹⁾은 乳齒列에 가장 效果的인 칫솔 形態를 報告하였다. Brandtzaeg

等 (1984)¹⁷⁾ 은 칫솔질 頻度와 口腔衛生狀態와는 相關關係가 없다고 報告하였으나, Baer(1957)¹⁶⁾, Greene等(1960)²³⁾, Hoover(1965)²⁶⁾, Horowitz (1977)²⁷⁾ and Silverstein(1977)²⁷⁾ 은 올바른 칫솔질 方法이 齒周疾患을 豫防하거나 治療하는데 效果的인 方法이며, 齒牙齶蝕症을 豫防하는데 效果的이라고 하였다.

健康에 對한 習慣과 態度는 小兒期에 가장 效果的인 教育이 行해질 수 있기 때문에 口腔保健教育을 소홀히하면 成人이 되어도 良好한 口腔保健을 얻기가 힘들게 되므로 齒科醫師와 保護者는 兒童의 口腔保健을 確立하는데 重要的 役割을 하게 된다. ^{10,14,20)} Williford等(1967)⁴⁾, Dudding等(1960)²⁰⁾ and Sandell(1961)³⁵⁾ 은 口腔保健教育에 關해서, Massler等(1952)³²⁾은 社會經濟的 與件, 口腔保健教育과 口腔衛生狀態와의 關係를, Jamison(1963)²⁸⁾은 家族의 教育水準과 乳齒列期 齒周疾患과의 關係를 報告하였으며, 李(1976)¹¹⁾, 李等(1982)¹²⁾는 都市 兒童을 對象으로 口腔保健管理實態를 報告하였고, 島嶼中學生에 對해서 金(1975)³⁾은 口腔保健管理實態를, 李(1975)¹³⁾는 口腔保健實態를 報告하였으며, 李等(1975)¹⁰⁾, 崔(1979)¹⁴⁾는 兒童의 口腔保健에 對한 保護者의 管理實態를 報告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研究報告는 大部分 學童들을 對象으로 行해졌다.

이에 著者는 保護者의 管理實態가 未就學 兒童의 口腔保健管理에 어떤 影響을 미치는지 與否를 把握하기 위해 光州市 “W” “H” 幼稚園 兒童과 保護者를 對象으로 保護者의 管理態度와 兒童의 齒苔指數와의 關係를 報告하는 바 이다.

II. 研究對象 및 方法

A. 研究對象

光州市에 所在하는 “H” “W” 幼稚園의 全身狀態가 健康한 滿 3歲 부터 6歲의 乳齒列期 兒童 118名(男: 78名, 女: 40名)과 兒童의 保護者 中

設問에 應한 保護者 79 名을 對象으로 하였다.

B. 研究方法

첫번째 訪問에서 對象兒童들에게 未就學 兒童用 칫솔* 2個와 齒藥** 주어 칫솔 하나는 幼稚園에서 使用하고 다른 하나는 家庭에서 使用하도록 하였으며, 保護者에게 口腔保健教育의 重要性에 關해 說明하고 設問紙 調査를 하였다.

1) 口腔檢査

口腔檢査는 첫번째 訪問 1週 後에 두번째 訪問, 두번째 訪問 4週 後에 세번째 訪問의 3回 訪問을 實施하였으며, 訪問時 마다 칫솔질前 齒苔蓄積量을 檢査하고 橫磨法에 의한 칫솔질 教育과 함께 著者の 監督 下에서 칫솔질을 시킨 다음 칫솔질後 齒苔蓄積量을 檢査하였다. 口腔檢査時 1級 以上の 齒牙齶蝕症이 있는 齒牙와 stainless steel crown이 裝着된 齒牙는 除外시켰다. 齒苔調査는 着色錠劑의 顯示液을 綿球로써 全 齒牙의 頰面과 舌面에 塗布하여 口腔을 물로 含嗽後 自然光線下에서 齒鏡과 探針을 利用하여 各 齒牙의 近心面, 遠心面, 頰面, 舌面을 調査하였다. 齒苔分布狀態는 Silness and Loe(1964)의 齒苔指數³⁰⁾에 따라 評價하였다. (表 1)

表 1. Silness and Loe의 齒苔指數

-
- 0 : 齒齶部位에 齒苔가 전혀 없는 狀態
 - 1 : 遊離邊緣齒齶과 隣接齒牙邊緣에 探針으로 지나가야 認知되는 境遇.
 - 2 : 邊緣齒齶은 肉眼으로 볼 수 있을 程度이며, 齒齶囊內에 普通의 軟한 沈澱物이 있는 境遇.
 - 3 : 邊緣齒齶과 齒齶囊內에 많은 軟한 沈澱物이 있는 境遇.
-

* 브랜디 비바칫솔

** 브랜디 齒藥

2) 設問紙 調査

保護者에 의해 記錄된 設問紙를 통해서 兒童의 口腔保健에 對한 保護者의 知識程度 및 管理態度를 把握하였다.

表2 設問紙

아이의 이름 _____
 아이의 성별 남() 여()
 아이의나이 만 _____ 살
 아이의 설문에 응답해 주신분과의 관계 _____
 설문에 응답해 주신분의 연령 만 _____ 세
 설문에 응답해 주신분의 최종 학력 _____

1. 아이들의 젓니에 발생하는 충치는 미리 예방하거나 조기에 치료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 ① () 필요하다
- ② () 모르겠다
- ③ () 필요없다

2. 아이들 에게 발생하는 우식치의 가장 큰 원인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① () 설당을 많이 먹어서
- ② () 치솔질을 잘하지 않아 음식물이 끼어서
- ③ () 모르겠다.

3. 아이들의 젓니(유치)는 평생동안

- ① () 한번 교환 한다.
- ② () 두번 교환 한다.
- ③ () 치아에 따라 다르다.

4. 아이들에게 칫솔질을 하는데 하루에 몇번 하도록 하고 계시는지요?

- ① () 아침, 점심, 저녁 3회 또는 그 이상
- ② () 아침, 저녁 2회
- ③ () 아침 1회

5. 보호자께서는 가정에서 아이들의 치아를 수시로 관찰하고 계시는
지요?

- ① () 자주 관찰 한다.
- ② () 관찰하지 않는다.
- ③ () 아프다고 하면 관찰 한다.

6. 갑자기 유치가 흔들리고 아프다고 할때에 응급처치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 ① () 병원에 데리고 간다.
- ② () 진통제만 먹인다.
- ③ () 그대로 버려둔다.

設問紙 評價는 다음과 같이 實施하였다. 設問 1, 4, 6에서는 보기①은 良好(Good), 보기②는 普通(Fair), 보기③은 不良(Poor)의 세 集團으로, 設問 2에서는 보기①, ②는 良好, 보기③은 不良의 두 集團으로, 設問 3, 5에서는 보기①은 良好, 보기②, ③은 不良의 두 集團으로 나누어 評價하였다.

Ⅲ. 研究成績

A. 칫솔질에 의한 齒苔減少效果

研究에 參加하므로써 家庭에서 하는 칫솔질 效果가 增進되어 訪問時 마다 칫솔질前 齒苔蓄積量이 減少되었고, 訪問時의 齒苔除去效果는 1次 訪問時와 2次 訪問時에서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3次 訪問時에 크게 나타났다.

(表 3)

表 3, 訪問時의 齒苔蓄積程度

訪 問	칫솔질前*	칫솔질後**
1	1.11 ± 0.39	0.53 ± 0.41
2	0.93 ± 0.42	0.40 ± 0.30
3	0.89 ± 0.40	0.28 ± 0.21

* F = 10.2209, P < 0.01

** F = 18.8019, P < 0.01

칫솔질前 齒苔蓄積量을 下顎보다 上顎에서 더 많고, 上顎에서는 頰面이 舌面보다, 下顎에서는 舌面이 頰面보다 더 많은 齒苔蓄積을 나타냈으며, 가장 적은 齒苔蓄積은 前齒部에서 나타났다. (表 4) 齒苔除去狀態를 살펴 보면, 下顎보다 上顎에서 齒苔除去效果가 크게 나타나고, 頰面에서 가장 많은 齒苔가 除去되었으며 舌面에서 가장 적은 齒苔가 除去되었다. 또 齒牙에 따라서는, 臼齒部에서 齒苔除去가 많았다. (表 4)

表 4, 齒苔除去 狀態

1) 齒面に 따라

		上 顎			
		칫 솔 질 前		칫 솔 질 後	
齒 面 訪 問		頰 面**	舌 面*	頰 面***	舌 面****
	1		1.31 ± 0.54	0.94 ± 0.57	0.54 ± 0.34
2		0.91 ± 0.65	0.75 ± 0.45	0.34 ± 0.19	0.37 ± 0.19
3		0.96 ± 0.66	0.75 ± 0.70	0.24 ± 0.36	0.24 ± 0.28

* P > 0.05

*** F = 11.3908, P < 0.01

** F = 5.9008, P < 0.01

**** F = 10.4285, P < 0.01

下 顎

齒面 訪問	치 설 질 前		치 설 질 後	
	頬 面**	舌 面*	頬 面****	舌 面***
1	1.08 ± 0.57	1.13 ± 0.53	0.44 ± 0.33	0.69 ± 0.45
2	0.70 ± 0.50	0.96 ± 0.43	0.22 ± 0.21	0.55 ± 0.23
3	0.82 ± 0.60	1.02 ± 0.64	0.22 ± 0.28	0.41 ± 0.33

* P > 0.05 *** F = 7.6764, P < 0.01
** F = 6.0553, P < 0.01 **** F = 10.2463, P < 0.01

2) 齒牙에 따라

	上 顎		
	치 설 질 前	치 설 질 後	
乳 中 切 齒	0.58 ± 0.57	0.07 ± 0.18	t = 13.479, P < 0.01
乳 側 切 齒	0.83 ± 0.64	0.14 ± 0.28	t = 16.447, P < 0.01
乳 犬 齒	1.02 ± 0.64	0.24 ± 0.34	t = 20.1384, P < 0.01
第一乳臼齒	1.18 ± 0.62	0.40 ± 0.40	t = 18.189, P < 0.01
第二乳臼齒	1.32 ± 0.62	0.62 ± 0.44	t = 15.548, P < 0.01

	下 顎		
	치 설 질 前	치 설 질 後	
乳 中 切 齒	0.66 ± 0.56	0.10 ± 0.20	t = 15.186, P < 0.01
乳 側 切 齒	0.77 ± 0.58	0.14 ± 0.26	t = 16.431, P < 0.01
乳 犬 齒	0.97 ± 0.60	0.23 ± 0.35	t = 17.759, P < 0.01
第一乳臼齒	1.09 ± 0.57	0.39 ± 0.37	t = 17.003, P < 0.01
第二乳臼齒	1.17 ± 0.55	0.54 ± 0.39	t = 15.431, P < 0.01

B. 保健者の 管理態度에 關한 調査成績

1) 調査 對象者の 分布

應答者は 어머니가 가장 많았으며, 年齡分布를 보면 30~34才가 가장 많고 45才 以上이 가장 작았다. (表5)

表5. 調査對象者の 年齡分布

應答者 年齡	父	母	其他	計(%)
~ 29		14	1	15(19.0)
30 ~ 34	11	28		39(49.3)
35 ~ 39	11	10		21(26.6)
40 ~ 44		3		3(3.8)
45 ~			1	1(1.3)

教育程度別 分布를 보면 高等學校 以上 學歷群이 74.7%로서 높은 教育 水準을 나타내고 있다. (表6)

表6. 調査對象者の 教育程度別 分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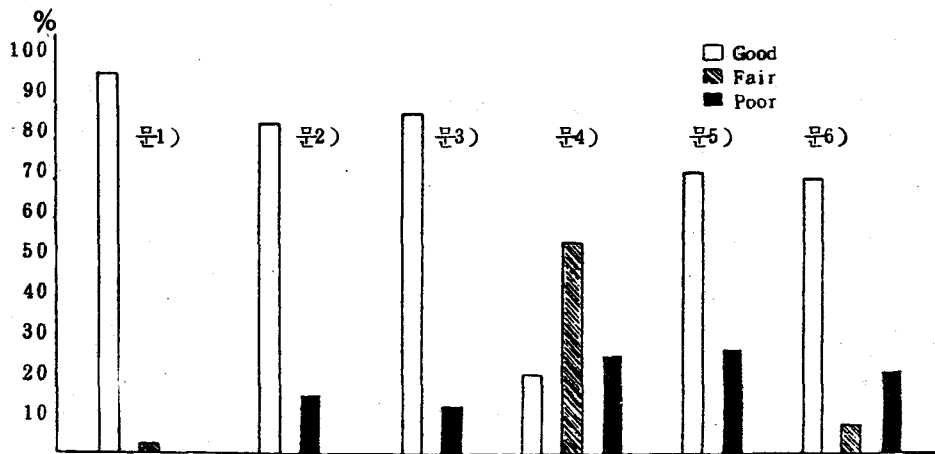
應答者 教育程度	父	母	其他	計(%)
國民學校			1	1(1.3)
中學校	6	13		19(24.0)
高等學校	5	31		36(45.6)
大學校	11	11	1	23(29.1)
計(%)	22(27.9)	55(69.6)	2(2.5)	79(100.0)

2) 設問에 對한 應答者 分布

兒童의 口腔保健에 對한 保護者의 知識程度를 나타내는 問1, 2, 3, 에서 97.5%, 84.8%, 87.3%가 良好한 反應을 하였고, 保護者의 管理態度를 나

타내는 問 5, 6 에서는 72.2% 70.9%가 良好한 反應을 하였으나 問 4 에
서 54.4%가 普通 反應 즉 하루에 2回 칫솔질 시키는 것으로 對答하
였다. (圖 1)

圖 1, 設問에 따른 調查 對象者의 分布



3) 保護者의 學歷에 따른 齒苔指數 (칫솔질前)

家庭에서 實施한 齒苔指數 效果를 보면, 保護者의 教育水準이 높을수록 兒童의
齒苔除去效果가 크게 나타났다. (表 7)

表 7, 保護者의 學歷과 齒苔指數 (칫솔질前)

	1 次	2 次	3 次
大 學 校 [*]	1.36 ± 0.39	1.04 ± 0.34	0.63 ± 0.30
高 等 學 校 ^{**}	1.31 ± 0.35	0.88 ± 0.40	0.74 ± 0.31
中 學 校 ^{***}	1.45 ± 0.28	1.02 ± 0.35	0.87 ± 0.34
國 民 學 校	1.33	0.95	0.88

* F = 25.8308, P < 0.01

** F = 25.7470, P < 0.01

*** F = 16.2292, P < 0.01

4) 設問에 따른 칫솔질前 齒苔指數

칫솔질 敎育 以前의 家庭口腔保健管理狀態를 나타내는 1次 訪問時의 칫솔질前 齒苔蓄積量을 保護者가 應答한 設問과 比較하였다. (表8)

表 8, 設問에 따른 칫솔질前 齒苔指數의 平均值

	問 1	問 2	問 3	問 4	問 5	問 6
	G F P	G P	G P	G F P	G P	G F P
齒苔指數	1.36 1.71 **	1.36 1.39 ***	1.36 1.34 *	1.26 1.30 1.54 **	1.33 1.41 ****	1.36 1.21 1.34 **

* $P > 0.05$

** $P \leq 0.01$

*** $t = -88.273, P < 0.005$

**** $t = -31.486, P < 0.005$

IV. 總括 및 考察

齒科領域에서 兒童의 疾患 中 가장 큰 比重을 차지하고 있는 齒牙齶蝕症과 齒周疾患은 文明發展과 더불어 나날이 增加되는 傾向을 보이고 있으며, 이들 疾患의 主된 原因이 齒苔蓄積과 關聯된다는 事實이 널리 認識되어, ^{13, 21, 34)} 齒苔를 抑制하고 除去하기 위한 努力이 繼續되고 있다.

口腔疾患을 豫防하기 위한 方法 中 올바른 칫솔질이 가장 基本的인 方法으로 Kimmelman等(1960)²⁹⁾ McClure(1966)³³⁾ and Sangnes(1974)³⁵⁾는 乳齒列期 兒童들은 올바른 칫솔질을 할 수 없기 때문에 保護者가 直接 해주는 것이 效果的이라고 하였으며, Starkey (1961)³⁸⁾는 保護者가 어린 兒童을 칫솔질 시키는 方法으로, 保護者가 兒童의 뒤에 서서 팔로 兒童의 머리를 감싸면서 口唇을 제끼고 칫솔질 시키는 方法을 報告하였다. Anaise(1975)¹⁵⁾, Sangnes(1974)³⁵⁾, McClure(1966)³³⁾, Kimmelman等(1960)²⁹⁾ and Starkey (1961)³⁸⁾에 의하면 橫磨法은 乳齒面의 飲食物 殘渣를 除去하는데 最善의 方法으로 齒牙齶蝕을 抑制하고 兒童들이 使用하기 容易한 方法이며, 乳齒와 乳齒列의 形態, 特히 頰·舌面의 齒頸隆起가 橫磨法으로 完全히 清潔해질 수

있으며 齒齦에 安定感을 賦與해준다고 報告하였다.

兒童의 口腔保健에 對한 保護者의 管理에 對하여, Mack 等(1962)⁹⁾은 家庭에서 實施하는 兒童의 口腔管理가 疑心스럽다고 報告하였으나, 李等(1975)¹⁰⁾, 崔(1979)¹⁴⁾ 및 Starkey(1962)³²⁾의 報告에서 保護者의 教育水準이 높아질수록 子女의 口腔保健管理에 臨하는 態度가 積極的이라고 하였듯이 本 研究에서도 保護者의 教育水準이 높을수록 兒童의 齒苔指數가 낮게 나타났다.

(表 7) 이는 口腔衛生教育을 小兒뿐만 아니라 保護者에게도 實施하여 積極的인 家庭口腔保健管理를 할 수 있도록 誘導하여야 한다고 思料된다.

齒苔減少效果를 보면, 첫번째 訪問時에는 兒童들이 칫솔질 教育 및 새로운 칫솔, 齒藥을 받음으로서 口腔保健에 對한 積極的인 姿勢를 갖게 되었으며, 두번째 訪問時에 齒苔減少效果가 크게 增進되지 않은 것은 첫번째 訪問의 過程을 反復하므로써 兒童들이 싫증을 낸 것으로 생각되며, 세번째 訪問時에 齒苔減少效果가 增進된 것은 5週 동안 칫솔질을 實施한 結果로 思料된다.

家庭에서 實施한 칫솔질 效果를 評價할 수 있는 칫솔질前 齒苔蓄積量을 보면, 첫번째 訪問時와 두번째 訪問時的 差異는 16%이나 두번째 訪問時와 세번째 訪問時的 差異는 4%로 齒苔減少效果가 낮아졌는데 이것은 4週 동안 家庭에서 管理가 不足했던 것으로써 兒童에게 繼續的인 칫솔질 教育과 管理를 實施하여 兒童들이 口腔衛生에 積極的으로 參與할 수 있게 하여야겠다고 思料된다.

上下顎 齒苔蓄積量을 比較했을 때, Tsamtsouris 等(1979)⁴⁰⁾은 下顎이 上顎보다 높다고 報告했으나, 本 研究에서는 上顎이 下顎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混合齒列에서 下顎이 上顎보다 높고 乳齒列에서는 上顎이 下顎보다 높다고 한 金(1975)⁵⁾, (1980)⁶⁾의 報告와 같이 本 研究의 對象이 乳齒列을 지냈기 故로 思料된다.

乳齒 齦蝕症의 早期治療 必要性에 關한 質問에서, 97.5%가 必要性을 認

定하였으며 李等(1975)¹⁰⁾, 崔(1979)¹⁴⁾의 報告에서는 92.9%, 98.1%로 서 大部分의 保護者가 乳齒 齲蝕症의 豫防 및 早期治療 必要性을 認定하였으며, 乳齒 齲蝕症의 豫防 및 早期治療 必要性을 認定한 保護者의 兒童에서 齒 苔指數가 낮게 나타나므로서 ($P \leq 0.01$), 잘 알고있는 保護者가 兒童의 家庭口腔保健를 效果的으로 管理할 수 있는것으로 思料된다.

齒牙齲蝕症의 發生 原因에 關한 質問에서 正確히 알고 있는 應答者는 李等(1975)¹⁰⁾, 崔(1979)¹⁴⁾의 報告에서 68.7, 82.1%였으나 本 研究에서는 84.8%로 나타났으며, 齒苔指數는 正確히 알고 있는 保護者의 兒童에서 낮게 나타났다. ($P < 0.005$). 著者의 調査對象에서 높게 나타난것은 國民들의 口腔保健에 關한 知識이 점차 向上되고 있으며 齲蝕齒 發生 原因을 正確히 알고 있는 保護者가 兒童의 口腔衛生을 잘 管理하고 있는것으로 思料된다.

乳齒 交換에 關한 質問에서, 李等(1975)¹⁰⁾의 報告에서는 88.7%가 알고 있었으나, 本 研究에서는 87.3%가 알고 있었다. 齒苔指數는 乳齒 交換에 對해 모르고 있는 保護者의 兒童에서 낮게 나타나므로 ($P > 0.05$), 兒童의 乳齒 交換에 對해 알고 있는 지 與否가 兒童의 口腔衛生狀態에는 影響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思料된다.

칫솔질 回數에 關한 質問에서, 本 研究에서는 20.3%가 3回 以上, 54.4%가 2回, 25.3%가 1回 칫솔질 시키는것으로 나타났으며, 島嶼 中學校 學生을 調査한 金(1975)³⁾의 報告에서는 97.9%가 하루에 1回, 2.1%가 2回, 3回 以上 칫솔질 하는 學童은 한명도 없었고, 李(1976)¹¹⁾의 報告에서는 서울 學童의 66.16%가 1回, 26.28%가 2回, 7.56%가 3回 以上 이며, 京畿道 學童의 62.85%가 1回, 30.77%가 2回, 6.38%가 3回 以上 칫솔질 하는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結果는 保護者의 關心이 많을수록 兒童의 칫솔질 回數가 增加되는것으로 나타났으며, 小兒期부터 칫솔使用의 習慣化가 要求된다고 強調되어 오고 있기 때문에 保護者에

의한 家庭口腔保健管理을 重要시 하고 있어서 保護者의 教育程度에 알맞는 方法을 擇하여 漸進的으로 啓蒙하는것이 効果的이라고 한 李等(1975)¹⁰⁾, Hollander(1961)²⁵⁾의 報告와 一致한다고 하겠다. 齒苔指數는 하루에 2회 칫솔질 칫솔질 시키는 경우에 가장 낮게 나타나므로서 ($P \leq 0.01$), 칫솔질 回數와는 관계없이 칫솔질 方法과 態度에 影響을 받은 것으로 思料된다.

子女들의 齒牙에 對한 觀察 與否에 關한 質問에서, 本 研究에서는 자주 觀察한다가 72.2%로, 崔(1979)¹⁴⁾의 報告인 72.8%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齒苔指數는 자주 觀察하는 保護者의 兒童에서 낮게 나타나고 있어 ($P < 0.005$) 保護者가 자주 觀察하므로서 兒童의 家庭口腔保健管理를 잘 할 수 있게 되므로 積極的인 管理姿勢가 必要하다고 思料된다.

家庭에서의 應急處置에 關한 質問에서, 本 研究에서는 病院에 데리고 가는 사람이 70.9%로 崔(1979)¹⁴⁾의 報告인 77.2%에 比하면 작게 나타났으며, 齒苔指數는 鎮痛劑만 먹이는 境遇에 가장 작게 나타나므로서 ($P \leq 0.01$) 乳齒가 갑자기 흔들리고 아플때 保護者의 管理態度는 社會經濟的인 與件의 影響을 받는 것으로 思料된다.

總括的으로, 乳齒列期 兒童의 口腔保健은 保護者의 口腔保健管理에 의해 至大한 影響을 받기 때문에, 兒童의 乳齒列 管理狀態와 保護者의 教育程度를 把握하여 積極的, 繼續的으로 兒童의 口腔保健管理에 臨하도록 啓蒙하는 것이 妥當하다고 思料된다.

V. 結 論

光州市內 “H” “W” 幼稚園의 滿 3歲 부터 6歲의 乳齒列期 兒童 118名 (男: 78名, 女: 40名)을 對象으로 口腔檢査를 實施하여 齒苔指數를 把握하고, 兒童의 保護者 中 設問에 應한 保護者 79名을 對象으로 設問紙 調査를 實施하여 兒童에 對한 保護者의 家庭口腔保健管理狀態를 把握하였으며, 保護者의 管理態度와 兒童의 齒苔指數와의 關係를 調査分析한 바 다음과 같

은 結論을 얻었다.

1. 乳齒列期 兒童에서 칫솔질 教育을 시키고 管理하고 있는 狀態에서 칫솔질을 實施한 境遇, 齒苔蓄積量은 繼續으로 뚜렷한 減少를 나타냈다.
2. 칫솔질 前 齒苔蓄積狀態를 보면, 舌面에 對한 頰面의 齒苔指數는 上顎에선 높았고 下顎에선 낮았으며, 前齒部 보다는 臼齒部에서, 下顎 보다는 上顎에서 齒苔指數가 높았다.
3. 保護者의 教育水準이 높을수록 兒童의 齒苔指數는 減少되었다. ($P < 0.01$)
4. 口腔保健에 關해서 높은 知識을 가지고 있는 保護者가 兒童의 口腔保健에 臨하는 態度에서 積極的이었다.

參考文獻

1. 權寧赫：“ 칫솔 使用頻度와 聯關한 齒苔形成과 齒齦健康에 關한 研究 ”
大韓齒周科學會誌, 5:74~82, 1975.
2. 金貞植：“ 칫솔 運動方向과 齒磨劑의 磨耗度에 關한 實驗的 研究 ”,
大韓齒科醫師協會誌, 13:1157~1161, 1975.
3. 金鍾培：“ 延坪中學校 學生의 口腔保健管理實態 調查研究 ”,
大韓齒科醫師協會誌, 13:1039~1045, 1975.
4. 金周煥, 金鍾培, 崔有鎮, 金鍾悅：“ 口腔保健學 ” 서울：高文社, 1979, PP.
17~54.
5. 金鎮泰：“ 乳齒列의 齒苔에 關한 研究 ”, 大韓小兒齒科學會誌, 2:28~
31, 1975.
6. 金鎮泰：“ 混合齒列의 齒垢에 關한 研究 ”, 大韓小兒齒科學會誌, 7:17
~ 20, 1980.
7. 朴一海, 李萬燮：“ 未就學兒童의 齒苔形成과 口腔狀態에 關한 調查研究 ”
慶熙齒大論文集, 4:351~357, 1982.

8. 申泳林, 李萬燮: “國民學校 低學年 兒童의 初期 齒石沈着에 관한 調査研究”, 慶熙齒大論文集, 4:73~81, 1982.
9. 李萬燮: 「齒周科學의 概要」 서울:慶熙文化社, 1979, PP, 61~64.
10. 李元鏞, 梁精康: “兒童의 口腔保健에 對한 保護者의 管理態度 및 知識程度에 關한 調査研究”, 大韓小兒科學會誌, 2:57~66, 1975.
11. 李慰之: “서울特別市와 京畿道 國民學校 學童의 口腔保健 管理實態 調査研究”, 大韓齒科醫師協會誌, 14:743~753, 1976.
12. 李載光, 崔有鎮: “口腔保健知識度 및 管理實態에 關한 調査研究”, 慶熙齒大論文集 4:91~99, 1982.
13. 李漢鳳: “延坪中學生의 口腔保健實態 調査研究”, 大韓齒科醫師協會誌, 13:117~131, 1975.
14. 崔哲熙: “兒童의 乳齒 管理狀態에 對한 保護者 教育程度 및 看護에 對한 研究”, 大韓齒科醫師協會誌, 17:65~71, 1979.
15. Anaise, J. Z.: “The Toothbrush in Plaque Removal”, J. Dent. Child., 42:186-189, 1975.
16. Baer, P. N.: “Periodontal Disease in Children and Adolescents: A Clinical Study”, J.A. D.A., 55:629-634, 1957.
17. Brandtzaeg, P. and Jamison, H. C.: “A Study of Periodontal Health and Oral Hygiene in Norwegian Army Recruits”, J. Periodontol., 35:302-307, 1964.
18. Carranza, F. A.: Glickman's Clinical Periodontology, 5th ed., Philadelphia: W. B. Saunders Company, 1979, pp.303-351.
19. Clark, C. A. et al: “Eliminating Dental Plaque in the Sixth Grade”, J. Pub. Health Dent., 33:70-74, 1973.
20. Dudding, N.J. and Muhler, J. C.: “What motivates Children to Practice Good Oral Hygiene?” J. Periodontol., 31:141-142. 1960.
21. Finn, S. B.: Clinical Pedodontics, 4th ed., Philadelphia: W. B.

Saunders Company, 1973, pp.287-290.

22. Gibson, J. A. and Wade, A. B.: "Plaque Removal by the Bass and Roll Brushing Techniques," J. Periodontol., 48:456-459, 1977.
23. Greene, J. C. and Vermillion, J. R. : "A Method for Classifying Oral Hygiene Status," J.A.D.A., 61:172-179, 1960.
24. Greene, J.C.: "Epidemiologic Research -1964-1967," J.A.D.A., 76:1350-1356, 1968.
25. Hollander, L. N.: "Basic Considerations in Educating the Patient to Modern Dental Procedures", D.Clin. North Am., pp.81-91, 1961.
26. Hoover, D. R. and Lefkowitz, W.: "Reduction of Gingivitis by Toothbrushing," J. Periodontol., 36:193-197, 1965.
27. Horowitz, A. M., Suomi, J. D., and Peterson, J.K. : "Effects of Supervised Daily Plaque Removal by Children: Results after Third and Final Year," J. Dent. Res., 56:2, 1977.
(IADR Abstract)
28. Jamison, H. C.: "Prevalence of periodontal disease of the deciduous teeth," J.A.D.A., 66:207-215, 1963.
29. Kimmelman, B.B., and Tassman, G. C.: "Research in Designs of Children's Toothbrushes," J. Dent. Child., 27:60-64, 1960.
30. Løe, H. and Silness, J.: "Periodontal Disease in Pregnancy II. Correlation between Oral Hygiene and Periodontal Condition," Acta Odontol. Scand., 22:121-135, 1964.
31. Mack, E. S. and Kipnis, M. B.: "The Myth of Home Dental Hygiene of Children," J.A.D.A., 65:520-523, 1962.
32. Massler, M., Cohen, A., and Schour, I.: "Epidemiology of Gingivitis in Children," J.A.D.A., 45:319-324, 1952.
33. McClure, D. B.: "A Comparison of Toothbrushing Technics for the Preschool Child," J. Dent. Child., 33:205-210, 1966.

34. McDonald, R.E.: Dentistry for the Child and Adolescent, 3rd ed., St Louis: The C.V. Mosby Company, 1976, pp.210~238.
35. Sandell, P.J.: "Effective Methods in Dental Health Education," Dent. Clin. North Am., pp. 205-214, 1961.
36. Sangnes, G.: "Effectiveness of Vertical and Horizontal Toothbrushing Techniques in the Removal of Plaque," J. Dent. Child., 41:119-123. 1974.
37. Silverstein, S., Gold, S., and Heilbron, D.: "Effect of Supervised Deplaquing on Dental Caries, Gingivitis, and Plaque," J. Dent. Res., 56:2, 1977. (IADR Abstract)
38. Starkey, P. : "Instructions to Parents for Brushing the Child's Teeth," J. Dent. Child., 28:42-47, 1961
39. Starkey, P.E.: A "Study of Four Methods of Presenting Dental Health Information to Parents," J. Dent. Child., 29:11-15, 1962.
40. Tsamtsouris, A., White, G., E. and Clark, E. R.: "The Effects of Instruction and Supervised Toothbrushing on the Reduction of Dental Plaque in Kindergarten Children," J. Dent. Child., 46:204-209, 1979.
41. Wiliford, J.W., Muhler, J. C., and Stookey, G. K.: "Study Demonstarting Improved Oral Health through Education," J.A.D.A., 75:896-902, 1967.